

고급 한국어 수업 1 회 (드림 걸)
DREAM GIRL for **advanced learners** (Lesson 1)

문법 Grammar

-을 듯, -는 듯, -은 듯

의미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데, 그 추측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사용한다.

미래	현재	과거
-을 듯	-는 듯	-은 듯

용법

추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뒤에 ‘말 듯, 마는 듯, 만 듯’을 함께 쓴다.

1. 연희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는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 이 사진에서는 웃는 듯 마는 듯 오묘한 표정이야.
(이 사진에서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오묘한 표정이야.)
3. 아이는 세수를 한 듯 만 듯 졸린 눈으로 학교에 갔다.
(아이가 세수를 한 것도 같고 세수를 안 한 것 같기도 한 졸린 눈으로 학교에 갔다.)

연습

‘-을 듯, -는 듯, -은 듯’ 중 하나를 골라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쓰십시오.

<보기>

고양이가 먹이를 먹을 듯 말 듯 쳐다보고 있다.
먹다

- (상황: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에)
찬호는 영화를 _____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보다
- (상황: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무서운 꿈을 꾴서 잠을 _____ 무척 피곤해.
자다
- (상황: 민규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전화번호를 _____ 민규의 애를 태웠다.
주다

TOPIC 연습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었을 때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 아버지는 무거운 얼굴로 이야기를 할 듯 말 듯 망설이고 계셨다.
 - 하나 마나
 - 할 듯 말 듯
 - 하고 말고
 - 하든지 말든지

단어 Vocabulary

‘XX 하다’ 형용사

- 간간하다: 맛이 조금 짜다.
(예) 고기를 간간하게 양념한 후 약한 불에 구우세요.
- 갑갑하다: 답답하게 막힌 느낌이 있다.
(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갑갑하다.

3. 괄괄하다: 성질이 세고 급하다.
(예) 괄괄한 민애 씨는 매일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온다.
4. 깔깔하다: 침이 생기지 않아 입 안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다.
(예) 피곤해서 입 안이 깔깔하고 입맛이 없을 때는 밥 대신 과일 주스 같은 걸 먹으면 좋은 것 같아.
5. 넉넉하다: 모자라는 것이 없이 여유가 있다.
(예)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까 시간은 넉넉해요.
6. 눅눅하다: 물기가 있어 조금 축축하다.
(예) 장마철에 눅눅해진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어찌면 좋지?
7. 답답하다: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이다.
(예) 김기문 씨는 교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픈 이야기를 답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8. 답답하다: 속이 넓지 못해 시원스럽지 않다.
(예) 아버지는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해.
9. 당당하다: 숨길 것 없이 떳떳하다.
(예)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덤덤하다: 특별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무관심하다.
(예) 직장 근처에서 옛날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개가 덤덤한 얼굴로 나한테 인사를 해서 섭섭했어.
11. 푹푹하다: (주로 어린 아이에 대) 매우 푹푹하고 영리하다.
(예) 지용이는 아주 푹푹해서 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도 곱셈을 할 줄 안다.

12. 막막하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아득하다.

(예) 혼자 서울에 올라온 윤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13. 만만하다: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예)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배달만 해 주면 되는 일이라서 만만해 보였다.

14. 밋밋하다: 별로 특별한 점이 없이 평범하다.

(예)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는 생활은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져.

15. 반반하다: (주로 여자에 대해) 얼굴이 예쁘장하다.

(예) 얼굴만 반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어떤지 살펴봐야지.

16. 분분하다: 의견이 많고 어수선하다.

(예) 안락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든 물론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7. 빡빡하다: 여유가 없다.

(예) 베트남에 출장을 왔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시내 구경 한번도 못하는구나.

18. 뽕뽕하다: 짝 차서 터질 것 같다.

(예) 소풍 가는 날 아이들의 가방은 간식과 도시락으로 뽕뽕했다.

19. 뽐뽐하다: 부끄러워야 하는 상황에서 당당하다.

(예) 그는 또 지역 주민을 속이고 뽐뽐하게 선거에 출마했다.

20. 섭섭하다: 서운하고 아쉽다.

(예) 마이클이 한국을 떠난다니 얼마나 섭섭한지.

21. 소소하다: 작고 중요하지 않다.

(예) 남편이 소소한 집안일을 도와줄 때 아내는 행복을 느낀다.

22. 수수하다: 화려하지 않고 평범하다.

(예) 가수 A 씨의 화장 안 한 수수한 얼굴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23. 쏠쏠하다: (돈에 대해) 괜찮은 수준이거나 기대 이상이다.

(예) 통장에 한 푼 두 푼 쏠쏠하게 붙어나는 액수를 보고 마음이 뿌듯했다.

24. 잔잔하다: (바람이나 물결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예) 할머니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25. 잠잠하다: 조용하고 평온하다.

(예) 한동안 잠잠하던 개구리 울음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들려왔다.

26. 쟁쟁하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이름이 있다.

(예) 이 학술대회에는 대회식에 쟁쟁한 학자들이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27. 적적하다: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

(예) 그는 적적하게 혼자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28. 절절하다: 몹시 간절하다.

(예) 절절한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 아팠던 첫사랑이 생각난다.

29. 찝찝하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불편한 느낌이 있다.

(예) 급하게 집을 나왔더니 문을 잘 잠겼는지 기억이 안 나 찝찝하다.

30. 축축하다: 물기가 있어 젖은 듯하다.

(예) 비를 맞아서 머리가 축축하다.

31. 칙칙하다: 색깔이 밝지 않고 어둡거나 흐리다.

(예)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왜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었어?

32. 침침하다: 툭툭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침침한 눈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셨다.

33. 칼칼하다: 목이 말라서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

(예) 발표 중간 중간에 목이 칼칼해서 계속 물을 마셔야 했다.

34. 탄탄하다: 잘 짜여져 있어 허술하지 않다.

(예) 그 영화는 구성도 탄탄하고 재미도 느껴지는 줄거리였다.

35. 털털하다: 성격이 까다롭지 않다.

(예) 우리 사장님은 워낙 털털해서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는 편이세요.

36. 팍팍하다: 살기가 어렵고 생활에 여유가 없다.

(예) 높은 집값과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간다.

37. 팔팔하다: 생기가 넘치고 활발하다.

(예) 그는 한창 일할 젊고 팔팔한 나이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38. 풋풋하다: 싱싱하고 상큼하다.

(예) 봄이 오자 대학교 캠퍼스에는 풋풋한 새내기들로 가득 찼다.

39. 헛헛하다: 허전하다.

(예) 어렸을 때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나자, 헛헛한 마음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40. 흉흉하다: 불안하고 무섭다.

(예) 여성들은 성폭행, 연쇄살인 등의 흉흉한 뉴스에 밤길이 무섭습니다.

◎ 단어의 의미와 예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연습

[1-5] 알맞은 것을 골라 형태를 바꾸어 쓰십시오.

괄괄하다 답답하다 당당하다 푹푹하다 만만하다
반반하다 뻔뻔하다 수수하다 털털하다 콕콕하다

1. 약속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서는 _____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거 있지?
2. 한국 팀이 속해 있는 B 조에는 쿠바, 일본 등 _____ 않은 상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2학년 3반에 머리 길고 얼굴 _____ 여자애 말이야, 개 이름이 뭐야?
4. 김 씨의 장례식장에는 평소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_____ 옷차림의 연예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5. 다섯 살짜리 아이가 천자문을 외우다니 정말 _____.

[6-10] 둘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6. (간간한 / 괄괄한) 고등어 자반이 있으면 밥 한 공기는 금방 먹을 수 있다.
7. 밤새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꾸었더니 이부자리가 (넉넉해 / 눅눅해).
8. 내일은 회의가 5 개나 되고 저녁에는 동창회에 가야되니 일정이 (빡빡하겠군 / 뽕뽕하겠군).
9.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적적한 / 절절한) 이야기에 모두 눈물을 흐릴 수 밖에 없었다.
10. 겨울 내내 입었던 (칙칙한 / 침침한) 목도리는 던져버리고 이번 봄에는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싶다.

TOPIC 연습

[1-3]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 승객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 째째해지자 (2) 깔깔해지자
 (3) 잔잔해지자 (4) 탄탄해지자
2.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1) 막막한 (2) 만만한
 (3) 밋밋한 (4) 팔팔한
3. 가정 주부 이 씨는 요즘 아동복을 맞춤 제작하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평균 100 만원이 넘어 그 재미가 () 합니다.
 (1) 축축하다고 (2) 쏠쏠하다고
 (3) 섭섭하다 (4) 칼칼하다고

[4-5]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4. (1) 전쟁이 난 이웃 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홍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3) 이번 가구 박람회에는 세계의 쟁쟁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
 (4) 가족을 모두 떠나보낸 김 할아버지는 팔팔해서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5. (1)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만들었어요.
 (2) 봄꽃은 꽃꽃한 매력이 있고 겨울꽃은 절절한 멋이 있지.
 (3) 우리 아들이 오늘 1 등을 하니까는 아빠는 정말 헛헛하다!
 (4) 점심 시간 내내 아이들로 가득 차 있던 복도는 수업 시간이 되자 잠잠해졌다.

정답과 해설

문법 Grammar

연습

1. 보는 듯 마는 듯
2. 잔 듯 만 듯
3. 줄 듯 말 듯

TOPIC 연습

1. (2) 할 듯 말 듯

‘-을 듯 말 듯’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상황에서 쓰여 ‘-을 듯 말 듯’과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단어 Vocabulary

연습

1. 뻔뻔하게
2. 만만치 / 만만하지
‘만만하지 않다’는 ‘만만치 않다’로 흔히 줄여 쓰입니다.
3. 반반한
4. 수수한
5. 푹푹하다 / 푹푹하구나 / 푹푹하네
6. 간간한

고등어 자반은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뜻합니다.

7. 눅눅해
8. 뽕뽕하겠군
9. 절절한
10. 칙칙한

TOPIC 연습

1. (3) 잔잔해지자

2. (1) 막막한

3. (2) 쓸쓸하다고

4. (4)

‘팔팔하다’는 기운이 넘치고 활발하다는 뜻이므로 절망한 김 할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5. (3)

‘헛헛하다’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1등을 해서 기쁜 아버지의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